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평가위원회 개최

전북 고창 만월공동체 등 4개 공동체 사업계획 평가



2019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모습. 위원들은 전북 고창 만월공동체 등 4개 공동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지난 12월 19일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 호텔에서 열렸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비롯, 6명의 평가위원들은 특별사업비 지원과 관련, 지자체에서 추천된 공동체 중 현장 점검결과를 거친 4개 공동체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원여부를 심의했다. 이에 앞서 지자체 추천과 현장점검을 거친 △전북 고창 만월공동체 △전남 보성 동월공동체 △경

남 거제 학동공동체 △충남 태안 대야도공동체 등 4개 공동체는 각각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발표했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는 선진등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총 10억원(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내의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지원제도로, 2010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4개소가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 12월 이사회 개최

전국대회 결과 보고 및 차기 회장 선출관련 논의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12월 18일 이사회를 갖고 차기 회장 선출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회장 김호연)은 12월 18일 오송연합회 사무실에서 연합회 이사,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여수에서 열린 제14회 전국대회 결과 보고 및 회장 선출의 건이 중점 논의됐다.

차기 회장은 내년 3월 총회에서 선출키로 하고, 김영권 전남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차기 회장 입후보 자격은 자율관리연합회 이사이며, 입후보 등록은 내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2018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금년도 분쟁조정 추진실적 및 운영방안 협의



12월 14일 서울역 LW컨벤션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회의 모습.

한국수산업회는 12월 14일 서울역 LW컨벤션 회의실에서 자율조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 총괄협의회(위원장 김영규)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열린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2018년 신규과제 4건과 2017년 미해결과제 1건

등 총 5건의 분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자율조정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올해 조정이 완료된 과제는 김양식 시기에 건흥을 해야 하는데, 어선어업자들이 어구를 설치한 채 철망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경기 화성 김양식 어업자와 어선어업자간 분쟁'이다.

이날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충남 홍성 남당어촌계와 어사어촌계간 어장개발 분쟁' 등 3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자체 종결키로 했다. 또 '부산 송정어촌계와 청사어촌계간 조업구역 분쟁'은 이월과제로 내년에 계속 조정키로 결정했다.

2018년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회의

올해 500점 이하 공동체 536개소 대상 방문 컨설팅 추진



12월 11일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가 한자리에 모여 활동보고 및 향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한국수산업회는 12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데이지홀에서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위원(15명) 및 한국수산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컨설턴트 활동보고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담당 컨설턴트들은 그동안 추진한 공동체 컨설팅 활

동을 보고하고, 향후 효율적인 컨설팅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15명은 지난 11월 말까지 500점 이하의 부진공동체 536개소(1,040회)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 컨설턴트들은 자원 관리에 대한 어업인 의식변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컨설팅 대상공동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공동체 구성요건 및 선정 취소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사무장 제도 도입 △위원장 교체시 사업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 등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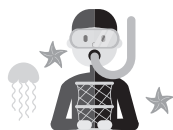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
www.jayul.go.kr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담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곳 선정

2019년 1차연도 1,729억원 투입



▶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실에서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개소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비 1,729억 원을 투입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어촌뉴딜사업 조감도 ▶



어촌을 해양레저와 휴양지 등으로 탈바꿈 시키는 혁신어촌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맞춤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선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한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0개 대상지를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9개소와 국민휴양형 17개소, 수산특화형 9개소, 재생기반형 5개소, 복합형 30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1개소, 인천 5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5개소, 경북 5개소, 전남 26개소, 전북 5개소, 충남 6개소, 강원 2개소, 제주 3개소이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총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우선 2019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여건 등과 함

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2019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설계를 추진한다.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과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과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단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 활성화 및 사업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담은 어촌뉴딜 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결과(70개소)

시·도	시·군·구	대상항	사업유형	사업명
인천	중구	소무의항 등	수산특화형	어촌뉴딜 300 "아름다운 어촌만들기" 사업
	옹진군	아달항	복합형(수산, 휴양)	아달항 무인도 체험관광개발
		담동항	복합형(수산, 휴양)	담동항 자연생태 탐조관광개발
경기	강화군	대이작항 등	복합형(레저, 휴양)	대소이작항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개발
		후포항	재생기반형	후포항 밴댕이마을 조성사업
충남	화성시	백미항	국민휴양형	화성시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사업
	당진시	난지도항 등	국민휴양형	힐링 테마랜드 난지섬 만들기 사업
		보령시	효자도항	국민휴양형
전북	태안군	가의도북항	국민휴양형	생태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서해관광 제1경의 가의도
		가경주항	국민휴양형	패총과 문화가 있는 어촌민속마을 가경주
	서천군	송석항	복합형(수산, 재생)	서천군 송석 해의 공동체마을
전남	서산시	중앙항	수산특화형	서산시 중앙마을 어촌뉴딜 300사업
		명도항	국민휴양형	명품 힐링 섬 조성사업
	무녀2구항	수산특화형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전북	고창군	동호항	복합형(휴양, 재생)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
		식도항	수산특화형	맛과 정이 있는 밥섬어가
	부안군	대리항	재생기반형	풍요로운 어항, 살고 싶은 대리
전남	강진군	서중항	국민휴양형	서중마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항	국민휴양형	남양 선정지구 어촌뉴딜 300사업
	고흥군	덕흥항	복합형(휴양, 수산)	동일 덕흥지구 어촌뉴딜 300사업
전남	광양시	와우포구 등	해양레저형	중마 와우 길호포구 해양관광지 및 어항시설 조성
		달리도항 등	복합형(휴양, 수산)	달리도항/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
	목포시	신월항	재생기반형	안전하고 활력넘치는 어항만들기 사업
전남	무안군	상진항	재생기반형	여자인 참갯벌로 다시 찾아오는 웃나루 상진항
		동울항	수산특화형	득량만 해돋이, 녹차 향이 어우러진 동울항
	보성군	죽포항	국민휴양형	여수시 돌산읍 죽포항 어촌뉴딜 300
전남	영광군	송이도항	국민휴양형	활기찬 어항, 어촌마을 뽕유 송이도
		법성항	국민휴양형	천년의 역사 법성포항, 문화와 관광의 법성포 마을
	완도군	솔지항	복합형(재생, 수산)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푸른마을 넘도
전남	장흥군	가학항	복합형(재생, 수산)	어촌마을 재생 일번지! 행복 가학마을
		노력항	국민휴양형	장흥군 회진면 어촌뉴딜 300사업
	진도군	창유항	국민휴양형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문 새섬 뉴딜 프로젝트
전남	함평군	송군항 등	국민휴양형	지중해 stay 송군권역 뉴딜 프로젝트
		함평항 등	복합형(수산, 휴양)	함평군 어촌뉴딜 300사업
	해남군	두모항	수산특화형	현산 두모항 어촌뉴딜 300사업
전남	구성항	수산특화형	화산 구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이수도항	국민휴양형	비상하는 학생 이수도
	거제시	학동항	국민휴양형	4계4색 힐링해변 학동
전남	고성군	입암항 등	복합형(수산, 휴양)	6차 산업형 디노토리 테마항 조성
		동갈화항	수산특화형	보물섬의 대표 어촌특화마을 갈화
	남해군	설리항	해양레저형	교류와 상생으로 발전하는 설리지구
전남	사천시	영복마을	복합형(레저, 휴양)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영복개발
		명동항 등	복합형(휴양, 재생)	명품 어촌 빌리지 명동
	창원시	주도항	재생기반형	창원시 주도지구 어촌뉴딜사업
전남	통영시	산등항 등	복합형(휴양, 재생)	육지면 산등/상리/하리 어촌뉴딜 300사업
		진두항 등	재생기반형	한산면 용초/진두/죽도 어촌뉴딜 300사업
	가오치항	복합형(레저, 재생)	도산면 가오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전남	하동군	연화항 등	복합형(레저, 재생)	육지면 연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진촌항	복합형(휴양, 재생)	사랑면 진촌항 어촌뉴딜 300사업
	술상항	수산특화형	수산특화 관광클러스터 한상차림 술상마을	
전남	하동군	중평항	해양레저형	바다에서 하늘까지 해양레저 중심 중평마을
		기장군	동암항 등	복합형(수산, 휴양)
	울산	동구	화암항 등	수산특화형
전남	포항시	신창2리항	복합형(수산, 휴양)	포항시 신창 플랫폼 조성사업
		울릉군	천부항	해양레저형
	울진군	석호항	해양레저형	울진군, 석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전남	영덕군	석동항	국민휴양형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살고 싶은 석리마을
		수렴항	복합형(레저, 수산)	되누리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즐거운 수렴마을
	경주시	어달항	해양레저형	어달항 바다놀이터 어달 팡팡
전남	고성군	반암항	해양레저형	반암항 북항남시공원 조성사업
		비양도항	국민휴양형	천년의 섬 비양도 사계절 휴양림 조성사업
	함덕항	복합형(레저, 휴양)	국민 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제주	서귀포시	하예항	해양레저형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 300사업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물회 가 도와드립니다.

특별기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촌뉴딜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자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여기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전국의 어업인, 학계, 지자체, 수산단체 관계자 등 모두 2,000여명이 참석함으로써 지난 2016년 이후 2년만에 열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춘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관리 공동체는 사업의 기반인 동시에 수혜자”임을 강조하며, 자율관리어업이 어촌뉴딜 300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특별히 당부했다.

장관, 전국대회서 특별히 강조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어촌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

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할 일종의 대규모 어촌 재개발 사업이다. 여기에서 ‘300’은 사업의 핵심 대상이 되는 전국의 소규모 항포구 숫자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선착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발, 즉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등과 같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내년에 1차로 7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될 이 사업에는 국비(70%)와 지방비(30%)를 합쳐 1개소 당 평균 약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렵잡아 이 사업에는 모두 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어촌 및 어항 개발에 대해 국가 차원에



이성희
한국수산신문
편집국장

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적이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대규모의 정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앞서 장관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역할은 각 공동체의 참여 여

하에 따라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170개소에 달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가운데 일부 내수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항포구나 어촌마을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어촌뉴딜사업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사업 자체가 단번에 두, 세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공동체 구성원 함께 고민해야

특히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궁극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춘 탓에 다소 소외받아온 마을어장 중심의 공동체에게는 어쩌면 현안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관이 직접 어촌뉴딜사업과 자율관리 공동체의 함수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내년에 실시할 사업대상 지역에 대한 공모를 통해 이달 말에는 70곳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어서 공은 해당 어촌마을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규모 어촌 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부응하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내가 사는 어촌마을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확대 방안 모색’

수협중앙회,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 개최



수협중앙회는 12월 19일 회의실에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를 갖고 휴어제 등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확대 방안 모색했다.

수협중앙회는 12월 19일 서울 송파구 수협 본부청사 회의실에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업종별수협 조합장과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수산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휴어제 등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정부의 수산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수산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업종별수협 조합장들은 △휴어제 참여 업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감소·미성어 금지제장 혼획을 규제에 대한 규제완화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5월에 구성됐다.

어선어업 분야 회원조합 12개와 양식어업 분야의 회원조합 7개를 포함한 총 19개 조합의 조합장들과 수협중앙회 지도상무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협중앙회장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휴어제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방식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수산자원 관리 질서를 구축과 어업인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며 “휴어제 재정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2018년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12월 3일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 충남도 어촌지도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지도자협의회가 열렸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2월 3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2018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양승조 지사, 도내 어촌계장, 여성어업인단체 지도자, 수산업경영인협회장, 내수면어업계장,

수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으로 김도현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연구교수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최근형 충남대 해양환경과학과 교수가 ‘갯벌 생태와 산업적 활용’을 주제로 각각 강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의 중심’ 충남을 만들겠다며 △안전 수산물 공급 확대 △수산물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확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명품 어촌어항 조성 △어촌체험마을 내실화 △어촌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4회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식 개최



12월 18일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제14회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 시상식에서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12월 18일 서울 송파구 수협 독도홀에서 ‘제14회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시-어촌 교류상’은 어촌사랑 자매결연운동을 통해 도시와 어촌 간 교류 활성화에 앞장선 이들을 격려하고,

교류 사례를 널리 알려 도시 어촌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 하고자 마련됐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국장 및 이동빈 수협은행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 8점, 수협중앙회장상 8점으로 모두 16명의 기업·단체, 어촌계,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네오다이버스클럽 △공주시강원도민회 △보광풍물단 △다대어촌계(거제수협) △웅도어촌계(서산수협) △병술만어촌계(안면도수협) △형진염주무관(가평군청) △김성수사무국장(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 수상했다.

2018년 한·중 민간어업협의회 개최

한국수산회, 중국측에 불법어업 근절 요청 등 현안 논의



한국수산회는 12월 19일 중국 하이난에서 중국어업협회와 민간어업협의회를 갖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위반조업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수산회 김영규 회장, 중국어업협회 자오싱우 회장을 대표단장으로 하는 한·중 양국의 민간대표단은 12월 19일 중국 하이난에서 민간어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어선 안전조업 및 질서 유지, 위반어선 담보금 납부 및 EEZ 입출역 통보 등 업무협력 방안, 협정수역 자원관리 방안 등 양측간 수산어업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 한국측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위반조업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어선이 입어절차 및 규칙을 잘 지켜 조업하도록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실무급 회의 활성화 및 양측 어업인단체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민간어업협의회는 매년 한·중 양국 간 수산관련 현안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김영규 한국수산회장을 대표단장으로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위원장 △김명남 웅진수협 상임이사 △이상진 인천수산인협회장 △정영철 근해장어통발산주협회장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 △최장민 경남부산근해통발산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성어업인연합회, 충남도 여성어업인 워크숍 개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12월 13~14일 양일간 지역 여성어업인,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워크숍'을 가졌다.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12월 13~14일 양일간 충남 예산군 덕산리 스파케슬에서 충남지역 여성어업인, 충청도지회 수산자원과장, 조합

장, 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여성어업인의 역할과 과제', '여성리더십' 등 여성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강좌를 비롯하여, 레저용 선박의 입출항 신고 강화, 어업인 간의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교육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해수부, 2018년 수산물 수출유공자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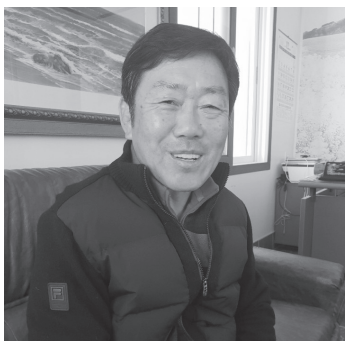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12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수산물 수출유공자 장관 표창 및 수출공로탑 수여식'

을 개최했다. 해수부 장관 표창은 수산물 수출 확대에 이바지한 대평에프엔씨, 신안천사김, 경남무역 등 8개사와 수출지원 기관인 수협중앙회·한국수산회 등 2개 기관 관계자가 받았다.

수출공로탑은 김, 광어, 전복, 참치 등을 수출한 40개 기업에 수여됐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2018년 수산식품 수출 브랜드 대전 시상식'과 '제7호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동체 탐방 / 제주 성산리 자율관리공동체

제주 해녀 관광 상품화로 소득 창출 ... 해녀 탈의장 국유지 사용료 부과에 적극 대응



홍은표 제주 성산리공동체 위원장.



제주 해녀의 작업활동을 연중 관람할 수 있는 물질 상설공연장.



성산리공동체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해안이 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 성산리 공동체의 청소 작업 후 기념촬영 모습.

지난 10월 말 여수에서 열린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제주 성산리 자율관리공동체 홍은표(62) 위원장. 그는 수산자원 조성하고 보호를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001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자율관리공동체를 결성, 자율관리어업을 제주에 전파시킨 장본인이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을 활용, 제주도를 상징하는 '해녀'를 관광 상품화하여 해녀문화 보전을 물론 지역 특산수산물 판매로 소득을 올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해녀 물질공연은 일출봉 아래 '우뭇개' 해안에서 오후 1시30분과 3시, 하루에 두차례씩 기상이 아주 좋지 않

은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열리는 공연이다. 해녀들이 배를 타고 나가 거나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민요인 해녀노래를 비롯, 실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작업을 보여주는 이 공연에는 연간 6~8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제주의 고유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60여명의 공동체 해녀들은 10개조를 편성, 공연과 수산물 판매를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라, 전복 등을 판매해 연간 8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공동체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해녀들 간의 소득에 따른 격차를 없애 공동체 회원간 신뢰감이 높아진 것은 해녀 물질공연의 부가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인 135ha의 마을 어장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가 필수적이어서, 성산리공동체는 전체 마을어업 소득의 70%에 이르는 소라의 부가가치를 위해 체포금지 체장을 8cm로 상향조정하여 여타 제주지역 소라 가격보다 높은 값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7~8월 두달간 오본자기의 체포금지기간도 설정하고, 지속적인 자원 조성에 힘을 쏟음으로써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오고 있다.

특히 홍은표 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제주지역 57개 자율관리공동체의 연합회장을 맡은 후에는 성산리공동체 뿐 아니라 제주관내 공동체의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도청과 시청을 수시로 방문하며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주의 상징인 해녀들의 탈의장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제주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제주해녀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홍 위원장은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탈의장 시설을 만들 때부터 차후에 부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전부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연간 수백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독촉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제주지역 해녀마을의 공동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행정관청을 찾아다니며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